

‘진격의 구현모號’ KT... 트루와 태국 디지털전환 이끈다

(KT 대표)

KT가 태국 통신사와 협력, 현지 디지털전환(DX) 시장을 공략한다.

KT는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바탕으로 태국 공공시장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정조준해 DX 사업 고객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KT가 태국 통신사 트루(True)와 디지털전환(DX) 사업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트루는 유선인터넷과 5G 이동통신 서비스, IPTV를 제공하는 태국 주요 통신사로 1분기 기준 유선 가입자 430만, 무선 312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트루와 DX 사업 공동 개발과 관련 서비스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KT가 보유한 기업전용 LTE·5G, 기가아이즈, 인공지능(AI) 호텔 등 DX

현지 통신사와 디지털전환 맞춘 서비스 핵심기술, 사업 공동개발
KT, 5G·AI 등 DX 역량 활용
기업·군대 등 기업전용 서비스도



구현모 KT 대표

역량을 활용해 태국에서 DX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업 전용 LTE·5G 사업에 긴밀히 협업해 태국의 대기업, 경찰, 군대, 정부, 태국 내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 등 B2B(기업간), B2G(기업-정부간)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기업 전용 LTE·5G는 일종의 무선 전용회선으로, 기업과 정부 등 도입 기관의 데이터를 인터넷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다.

트루 피론 파이리파릿 5G워킹그룹 본부장은 “태국에서 DX 사업을 하려는 KT와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KT의 기업전용 LTE와 5G 도입으로 고객 데이터 보안 신뢰성을 높이고 전용 요금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기업 고객의 5G 효율성을 극대화하



KT와 True가 태국 DX 시장 진출과 관련한 MOU 체결 후 가상 스튜디오(True 5G XR Studio)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True의 위튼 지엠시리칸 부장, 피론 파이리파릿 5G 워킹그룹본부장, KT의 문성욱 글로벌사업본부장, KT 김윤호 상무, KT 오호준 팀장. /KT

겠다”고 말했다

KT Enterprise부문 문성욱 글로벌 사업본부장은 “True와 DX 협력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개발하겠다”며 “모바일 정보 보안을 강화한

KT 기업 전용 LTE와 5G 서비스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고, 기가아이즈와 같은 보안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metroseoul.co.kr



현대오일뱅크 수소제조공장.

현대오일뱅크, ‘블루수소’로 그린성장 탄력

수소 제조 과정시 배출되는 탄산가스 전량 회수해 활용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개발

현대오일뱅크가 사업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량 대비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한다. 미래 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 ‘탄소중립 그린 성장’을 선언한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30일 목표 저감량 상당 부분을 신사업 진출로 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를 3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블루수소와 친환경 소재 분야는 탄소중립 그린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유공장은 탈황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LNG, 납사, LPG를 원료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소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발생한다. 정유사가 친환경 블루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회수 및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대 액체탄산 제조업체인 신비오케이칼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총남 대죽 일반산업단지에 드라이아이스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새 공장에는 현대오일뱅크 수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

는 탄산가스 연간 20만 톤이 원료로 공급된다.

기존 탄산가스 수요처인 선도화학과도 협력을 강화해 이들 업체에 공급하는 탄산가스 규모를 지난해 9만 톤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연간 36만 톤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수소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를 전량 회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100% 블루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셈이다.

또, 탄산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나선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연구기관, 협력 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공장 가동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메탄올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와 플라스틱, 고무, 각종 산업기자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는 생산한 수소를 활용해 수소발전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공동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자산 2兆’ SK리츠, 연내 코스피 입성 추진

SK(주), 이사회서 상장 추진 의결
관계사 장기 임차... 고배당 기대

SK리츠가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작전을 시작한다. SK(주)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SK리츠 상장 추진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SK리츠는 SK그룹의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로, 이번달 영업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SK서린빌딩과 주유소 등 SK그룹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며, 초기 자산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사들이 장기 임차할 예정이어서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SK관계사도 부동산 자산을 SK리츠에 매각해 자산 효율화와 성장 투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SK는 SK리츠운용에도 리츠추진 업무를 담당할 신도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자산운용사와 회계법인 등 전문가 영입도 끝났다.

SK리츠는 영업인가 직후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에 돌입했으며, 모집금액(약 1550억원) 목표 달성과 함

께 5년 이상 장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SK리츠는 7월 초까지 주요 자산 매입을 마무리하고 3분기 공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공모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SK(주) 관계사는 “SK리츠는 SK그룹 핵심 연계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고 견고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향후 글로벌 자산에도 투자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아시아 최대규모 복합리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스마트폰서 간편하게 건강기록 확인해요”

카카오·네이버, 복지부 등과 맞춘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등 개선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오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정보정보원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이용자는 오는

9월부터 카카오톡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로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의 건강기록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앱이다. 병원 진료 이력, 투약 이력, 예방접종 내역, 건강검진 이력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이용자는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가

하반기 차세대 배터리 ‘Gen.5’ 본격 양산

>> 1면 ‘삼성SDI’서 계속

삼성SDI는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팩 생산 공장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없어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이른 시일 내 공장 건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과 모듈, 팩 순으로 구성돼 하나의 배터리가 완성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삼성SDI는 영국에도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이 영국 정부 혹은 지역 당국과 현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안 관련 공장 입지 및 재정 지원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삼성SDI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배터리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배터리인 ‘Gen.5’ 배터리를 본격 양산한다. 이 배터리는 니켈 함량 88% 이상의 하이니켈 기술이 적용돼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또 삼성SDI는 2027년 이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도 계획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사용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그만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올해 연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부문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소형 배터리와 달리 삼성SDI는 아직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 /김수지 기자